

MARU

Interior Design vol. 54 JUNE 2006 www.maruid.co.kr

FOCUS | 에버그린 법률사무소

THEME ISSUE | 국제 조명디자인 프로젝트

PEOPLE | 이효재

OVERSEAS INTERIOR | 펠리페 아사디

INTERIORS | 화인한의원 · 조진철성형외과 · 베니건스 · S치과
식스애비뉴 · JJAM 노래방 · 안기영성형외과

DESIGNER'S | 최병훈

HOME INTERIOR | 보라 스카이뷰 펜트하우스

LIVING DESIGN | 세라미카 플라미니아 · 파차미나



Choi, byung hoon

최병훈

취재 최지영 기자 사진 최병훈 제공, 이종현

동양적 모더니스트

5월 3일 부터 6월 4일 까지 프랑스 파리 다운타운 갤러리(galerie DOWNTOWN francoise laffanour)에서 '제 10회 최병훈 아트퍼니처전'이 열렸다. 다운타운 갤러리는 론 아라드, 찰스 임스, 르 꼬르뷔제, 에도레 소사스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 및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파리 최고의 예술가구 전문갤러리이다. 이번 전시는 1996년 파리 첫 초대전 이후 4번째 해외 전시로 최병훈은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퍼니처 아티스트이다. 그는 지금까지 열 번의 개인전 중 4번을 해외에서 가질 정도로 국내 뿐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최병훈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아트 퍼니처(Art Furniture)를 시도하여 침체되어 있던 국내 목공예계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어린 시절 곤충채집을 하곤 했던 추억을 토대로 선보인 '채집된 곤충' 시리즈(1983)는 기존의 공예와 조형을 재해석한 새로운 시도였다. 이 시리즈는 자연에서 얻은 모티브로 실용성있는 오브제로 강렬한 시각적 이미지를 준다. 1988년 이후 발표한 '태초의 바람' 시리즈는 유기적인 곡선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CD장, 테이블, 화장대 등과 같이 사용함으로써 소통할 수 있게 하였다. 목재와 돌로 만든 작품으로 전통성을 담고 있으며, 간결하면서도 부드러운 조형미를 갖고 있다. '태초의 잔상' 시리즈는 외형적 특징보다 내재된 미학을 은유하고 있다. 특히 2000년에 들어서는 최병훈의 작품 경향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는 "1996년 파리 전시를 계기로 단순한 곡선미를 추구하는 유기적 모던(Organic Modern)을 추구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최병훈은 자신의 작품을 자연주의와 미니멀리즘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의 작품들은 동양의 도교나 선(禪)사상을 바탕으로 한다. 작업 과정부터 작품이 놓이는 것 까지 자연과 일체감을 고려하듯, 동양의 자연합일 사상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타원형, 시각형, 구체 등 일체의 장식이나 기교 없이 간결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일본 작가의 섬세함이나 중국 작가가 보여주는 화려함이 아닌 덧없는 한국적인 정서가 최병훈의 작품에 깃들어 있다.

최병훈은 "론 아라드, 찰스 임스 등 세계적인 유명한 아티스트의 작품을 표방한다고 우리가 론 아라드나 찰스 임스가 될 수 없다. 우리는 그들과 다른 정서를 갖고 있으며, 우리 고유의 미적 가치를 선보여야 한다. 그렇다고 단순히 전통을 리바이벌하는 것은 년센스이다. 그리고 전통을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며, 오늘날 글로벌 시대에 보편적인 미의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나의 작품들은 현대적이지만 서양인들이 갖지 못한 동양적인 정신이 담겨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나의 작품들을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확고한 디자인 철학을 구축하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라고 말한다.

최병훈은 이러한 확고한 디자인 철학을 바탕으로,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예술과 디자인의 조화를 이루는 아트 퍼니처 작품을 선보이기 때문에 파리, 스위스, 이태리 등 세계 디자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M**



Photo by Lim, young-kyun



Photo by Lim, young-ky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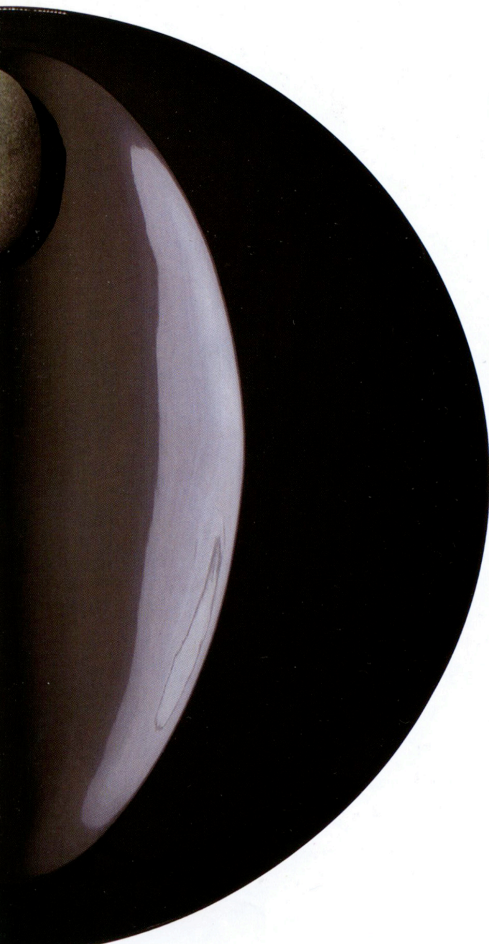


최병훈 Choi, Byung-hoon

1952년생, 최병훈은 홍익대학교 응용미술학과를 졸업하고 동 신미술대학원에서 가구디자인을 전공하였다. 핀란드 헬싱키 미술 디자인 대학 연구교수, 미국 로드 아일랜드 디자인 대학 객원교수를 역임하였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청주 국제공예 비엔날레 심사위원, 서울 공예대전 추진위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89년 한국 공예가협회상 수상, 96' 한국 가구협회 우수상 수상, 96' 월간 디자인 주최 올해의 디자인상 수상 등을 하였다. 현재 한국가구학회 회장이며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목조형가구학과 교수이다.

Art Furniture Exhibition in Paris 2006

제10회 최병훈 아트퍼니처 展



New Orientalism을 향하여

2000년 들어 최병훈의 작품경향은 다소 변화하기 시작한다. 그동안은 직선이나 간결한 곡선 위주의 작품을 하다가 1996년 파리 다운타운 화랑(Galerie Down Town) 전시회를 계기로 아주 단순한 곡선미를 추구하는 '유기적 모던(Organic Modern)'을 더욱욱 추구하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유기적 가치'에 대한 추구는 아마도 이미 본인의 조형세계에 잠재되었다가 파리 전시회를 계기로 표면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의 의자나 스톨, 콘솔, 테이블 등에서 이러한 유기적 단순함을 쉽게 엿볼 수 있다.

향후로도 오랫동안 지속될 이 '유기적 모던'을 실천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연구하고 있는 최병훈은 2006년 전시회 작품들에서는 우선 두 가지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다. 첫째는 재료면에서 그동안 표면은 다소 투박하지만 자연적인 형태미가 돋보이는 화강암 돌을 곁에 고운 나무와 대비시켜 왔으나 이번에는 유기적인 형태에 좀더 부드러운 세련미를 주기 위해서 화강암 돌 대신 자연적인 마블링이 있는 대리석을 다듬어 쓰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표면처리 방법인데, 소나무와 밝은 색의 단풍나무, 곁에 고운 검은색 흑단을 주로 써 왔던 것에 비해 이제는 단풍나무에 전통적인 천연 옷칠을 7~8회 입혀서 우아하면서도 화려함이 있는 깊은 검은색으로 만들었다. 그는 이 옷칠작업을 위해 작업장에 옷칠 건조실까지 갖추어 놓고 전통적 기법을 현대적인 가치로 승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옷칠의 특징은 내구성이 있고 인체에 유익한 천연도료로서 목재가 따르지 못하는 방수기능을 보완해주므로 상당히 효율적이다. 옷칠을 한 나전칠기는 고려 11~12세기에는 최고조로 정점에 올라 대외적으로 예물로 쓰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는 이렇게 전통적인 옷칠기법을 재현하여서 현대적인 가치를 부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목재의 새로운 세계를 찾았다. 조형면에서는 유기적인 단순한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 그만의 독특한 조형수단인 대비적 효과(다른 물성과의 조화), 즉 나무의 가벼움과 돌의 무거움, 화강암의 자연스러움과 대리석의 부드러움, 검은 색 옷칠과 밝은 대리석을 비교함으로써 긴장감을 주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옷칠의 화려함 속에서도 여전히 적연의 고요함이 있으나 앞서의 '태초의 잔상' 시리즈와 다소 다른 느낌이 들기도 한다. 즉 관조자로 하여금 구상케 하면서도 어느새 만지고 싶은 욕망이 일게 하는데, 이 점은 작품에 감정을 이입시켜 대화를 함으로써 '물화'의 경지로 인도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이상 간략하게 고찰해 본바와 같이 'Furniture Artist' 최병훈은 분명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작가이다. 그는 한국 현대공예를 이끌어 온 선도자로서 청년시절의 세계 문명에 대한 미적 체험과 가구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감각과 역량을 갖추었다. 그의 작품들은 외형적으로는 'Art Furniture'를 매체로 삼아 근저에 일관되게 흐르는 전통성의 현대적 가치와 세계적인 유기적 모던을 추구하고 있으며, 내면적으로는 평온한 한국적 심상이 담긴 'New Orientalism'을 구현하고 있다. 이번 파리전시회는 이 같은 최병훈의 조형세계에 동참해서 '유기적 모던'에 실린 New Orientalism을 체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이 분명하다.

안귀숙 미술사학자, 박사 평론 중



다운타운 갤러리 전시품경



Afterimage from
the Beginning of the World 1994~2003

태초의 잔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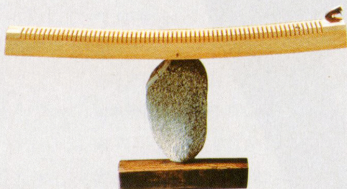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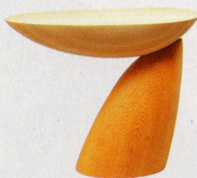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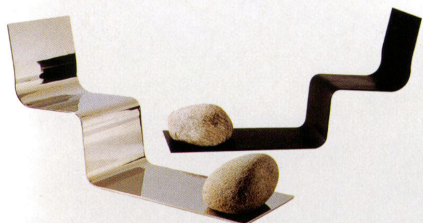


Photo by Bae bien-u



Photo by Bae bien-u



Photo by Bae bien-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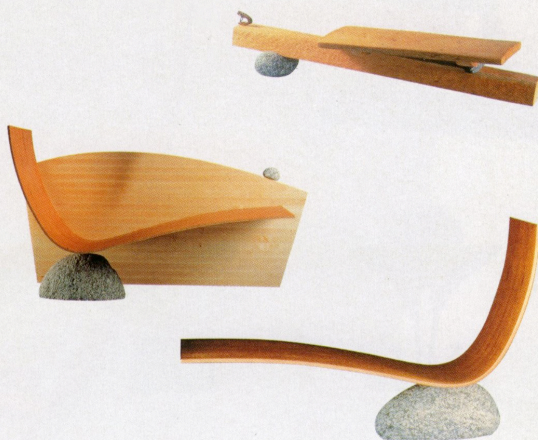


Photo by Bae bien-u



Photo by Bae bien-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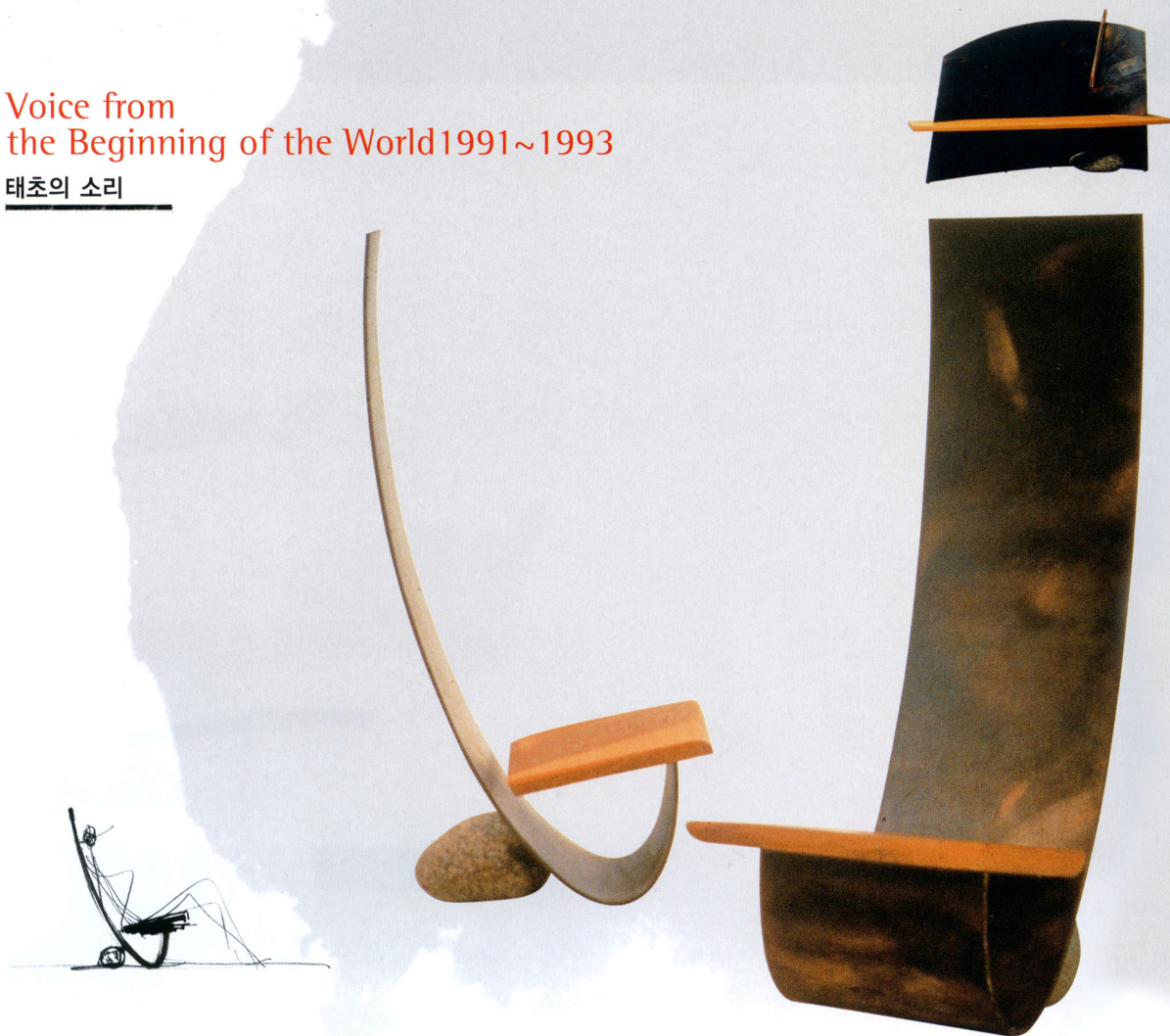
Wind from
the Beginning of the World 1989~1991

태초의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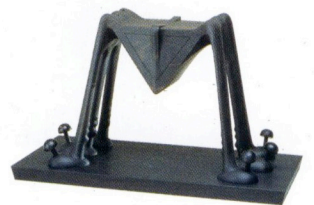
Voice from
the Beginning of the World 1991~1993

태초의 소리



Collected Insect 1978~1987

채집된 곤충





“나는 그만큼 서정적이고 아방가르드와 전통, 무거움과 가벼움,
매끄러움과 거칠음 등이 공존하는 작품을 제작한 아티스트를 본 적이 없다.”

— 미셀 누리자니 —

atelier choi

아틀리에 초이



